

지역 메아리



김제시체육회 성산공원 환경정화

김제시체육회는 3일 창립2주년을 기념하여 체육회 임직원 및 30개 회원종목단체, 체육청소년과 직원들과 함께 성산공원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김제시체육회에서는 이번 환경정화 활동의 장소를 김제성산공원으로 선정한 이유를 김제시민들의 휴식 공간 및 관광 명소를 사당받고 있는 성산공원과 전북 유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된 김제향교 대성전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무료 지원

김제시(시장권한대행 이우천)가 지난 4월 2일부터 관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학생이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2016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등록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며, 지원범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생활비 제외)에 대해 올해 상반기(1~6월)동안 발생한 이자(2.2%)를 전부 지원한다.

신청 접수 후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여 오는 7월 중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이차지원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경찰서, 음주단속 강화

김제경찰서(서장 박훈기)는 지난 3일초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평소 야간12에만 시행했던 음주단속을 주간과 심야에도 강화하고 있다.

주간·심야 불시 음주단속 시행 배경은 지난 1월~2월사이 음주 사고(물피 포함) 26건 중 9건(34.6%)이 새벽시간(00:00~04:00)과 주간(16:00~18:00)에 발생, 김제에서 발생한 음주사고의 가장 위험한 시간이 주간과 새벽시간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음주단속 장소를 김제시내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김제 금구면 등 시·외권에서도 교통과 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가능성 유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완주군, 분변토 재활용 기술 도입... 농가소득 올리고 일자리 창출 기여

완주군이 가능성 유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에 나선다. 3일 완주군은 농촌진흥청의 가능성 유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가능성 유용곤충의 분변토 재활용을 통해 농가 곤충산업의 분변토 재활용을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예산 1억원을 투입해 가능성 유용곤충의 분변토 재활용 기술을 도입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및 실용화로 농가 소득 경쟁력 강화와 곤충산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구멍이 분변토를 펠릿화하고 한우

사육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바닥재로 2차 제품화해 톱밥펠릿을 연간 1,336t을 생산해 2억6700만원의 수익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곤충농가의 홍보와 제품의 다양화, 원가절감으로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원을 추가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선다.

또한 곤충 사육 농가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발효물받으로 사육을 하면서 분변토 폐기물 처리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완주군의 사업 추진은 유용곤충의 분변토 재활용 기술도입으로 곤충사육 농가의 경쟁

력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완주군의 이번 사업은 그동안 관내에서 유용곤충 생산, 사육시설 및 곤충사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관료와 곤충사업의 경쟁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곤충산업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속적인 교육 추진과 사육농가 단위로 컨설팅을 추진해 미래차원으로 곤충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모유수유 간담회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수요일 오전 10시 부터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관내 거주 출산부 및 수유부들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실천율을 증가를 위하여 아기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과 면역체계를 형성하고 산모의 빠른 회복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모유수유 간담회를 운영한다.

모유수유 간담회는 4월 11일, 9

월 12일 수요일 오전 10:00~12:00분까지 반기마다 총 2회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국제모유수유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뤄지며 모유수유 자세 및 교정, 모유수유 이론 강의, 아기 성장 마사지 및 오감자극 등 모유수유 성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식목일 맞아 나무심기 행사

완주군이 제7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3일 완주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식목일 나무심기 기념행사를 만경강수변생태공원에서 박성일 완주군수 등 공무원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졌다.

이번 나무심기행사에서는 남천, 산수국, 황매화 등 17가지 수종을 식재했

으며, 이를 통해 2018년 전국제천 개최에 따른 내방객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고 생태관광자원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조성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완주군은 올해 조립사업을 통해 경제수종 80만본을 식재, 산림바이오에너지원 확보와 탄소흡수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림 조성 및 가로수 정비를 통해 군민에게 활력 있는 숲터, 힐터를 제공 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미래식품 창의도시 완주' 로 나아간다

식품산업 발전 실행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완주군이 '미래식품 창의도시 완주' 를 위해 종합적인 식품발전방안 마련에 나섰다.

완주군이 '미래식품 창의도시 완주' 를 위해 종합적인 식품발전방안 마련에 나섰다.

3일 완주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미래 식품산업 선도를 위한 '완주군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달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완주군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은 지역단위 농업생산·소비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한 선도사례지역인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이 향후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식품선도 지자체로 성장하기 위한 과업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미래식품 창의도시 완주' 를 비전으로 한 종합적인 식품발전방안 4개 분야 38개 사업이 제시됐다.

핵심사업으로 제안한 미래식품산업 육성으로는 ▲W푸드테크센터(미래식품 개발·제조),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지원을 위한 R&DB구축 ▲치유·체험·관광을 아우르는 테라피센터 ▲W푸드마켓(스마트팜·농산물직매장·레스토랑 결합형)이다. 또

한 2030년까지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

해 100만 체임객 유치, 1000여명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전문가로 참석한 조승현 전북 연구원 박사는 "완주의 식품산업 비전은 전라북도가 식품을 육성하는 광역자치단체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선도를 위한 국가목표와 유엔의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패턴을 보장하는 세계목표에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

또한 전효진 전주대 교수는 미래식

사하고, 박기홍 우석대 교수는 "완주군이 주체가 돼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마련으로 식품산업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일 군수는 "로컬푸드 성공과 현재까지 잘 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을 집적화하고 부족한 의식산업 및 음식 관광에 대해 더 보완해 나가겠다"며 "15만 자족도시 완주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과제로서 향후 우선 사업을 선정하고 카테고리별 분류를 통해 실제적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정성주 김제시장 예비후보 소통행보 나서



정성주 김제시장 예비후보(민주평화당)의 시민과의 참여 소통이

3일 캠프에 따르면 정 예비후보의 시민과의 참여 소통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민심이 원하는 정책 공약의 대변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정 예비후보의 SNS계정에는 "기존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으로 정 예비후보의 실생활과 관련된 공약은 큰 기대가 된다", "농업 정책, 장애인 정책, 대중교통 등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 접하는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정책이 멋지다"는 등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실제 생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부분부터 하나, 하나 바꿔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제시를 위한 큰 비전인 5대 공약을 큰 틀로 모두가 살고 싶은 김제를 만들고 싶다"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정성주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